

'24년 '항공안전투자' 6조 1,769억원

- '23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 증가(5.7%)한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사	글로벌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6,594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안전투자 항목을 보면,

- 정비비용은 3조 6,100억원으로, 전년(2조 9,400억원) 대비 크게 증가(23%↑, 6,700억) 하였으며,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비용은 86.4%(3조 1,200억),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은 13.6%(4,900억)를 차지

○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원으로, 전년(1조 1,300억원) 대비 18.9%(2,500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원으로 전년 투자액 11,921억원 대비 큰 폭(55.1%)으로 감소하였다.

* 경년항공기 교체: '23년 14대 → '24년 4대

○ 또한, 금년에는 투자 총액뿐 아니라 '1만운항당 투자액*' 등 항공사별 운항 규모를 고려한 표준화된 지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항공사 간의 투자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만운항당 투자액"은 항공사별 운항 규모 차이(대형사 수십만 편, 소형사 수천 편)를 고려해, 항공기가 1만회(동일한 기준)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을 의미

□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하여 저기령* 항공기의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항공정비사뿐만 아니라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 안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제 안전 활동에 대한 투자 실적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 "기령(機齡, Aircraft Age)"은 항공기의 제작·등록 시점부터 경과한 연수(나이), "경년(經年, Aging Aircraft)"은 그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노후기)를 의미함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 공시를 통해 항공사들이 선제적으로 안전체계 개선분야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8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곽영필 (044-201-4244)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인갑 (044-201-4254)
		담당자	주무관	김승진 (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	책임자	실장	이엘리사 (032-727-5642)
		담당자	연구원	남승주 (032-727-5601)

'24년 항공안전투자 실적

【 2024년 항공안전투자 총평 】

◆ '24년 항공교통사업자의 총 항공안전투자액은 6조 1,769.1억원으로, 전년(5조 8,445.1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

→ **국제운송사** 5.87조원(전년 5.58조 比 5.3%↑), **소형운송사** 121.5억원(전년 83.1억 比 46.2%↑), **공항공사** 2,904억원(전년 2,586억 比 12.3%↑)

① 국제항공운송사(11개)

□ **(총 투자금액)** 5조 8,743.8억원(전년 대비 2,968.1억원, 5.3%↑), FSC는 4조 6,336억(전년 대비 6.2%↑), LCC는 1조 2,408억(전년 대비 2.2%↑)

* 대한항공: 3조 2,244억(15.5%↑), 아시아나항공: 1조 4,091억(10.4%↓), 제주항공: 3,134.5억(36.5%↓), 진에어: 1,985.8억(77.4%↑)

□ **주요 투자 항목별 실적**

○ **(정비비용*)** 3조 6,100억원(전년 2조 9,400억 대비 6,700억↑, 23%↑),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가장 큰 항목

* 항공기 정비·수리·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소속 정비사의 인건비도 포함)

- 항공기 1대당 비용은 87.6억으로 FSC(117.0억)가 LCC(44.4억)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

- 특히,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비용이 86.4%(3조 1,200억), 운항 중 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은 13.6%(4,900억) 차지

○ **(엔진·부품 구매*)** 1조 5,700억원(전년 1조 1,300억 대비 2,500억↑, 19%↑)

* 엔진 및 부품 등의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전체 투자의 26.6%를 차지, 항공기 1대당 38억을 투입하였으며, FSC(48.6억원)가 LCC(22.5억원)보다 2.2배 많이 투자

○ **(경년항공기* 교체)** 5,347억원(전년 11,921억 대비 6,573억↓, 55.1%↓)으로 전체 항목 중 10.4% 차지, '23년(14대)에 비해 감소한 4대 교체

*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교체를 위해 구입·임차 목적으로 지출되거나 계획된 비용

- 3개 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로 교체* * 교체항공기 평균기령은 23.2년
 - * 교체 항공기: B787-9 1대(대한항공), A321-200Neo 2대(아시아나), B737-8 1대(진에어)
- (교육·훈련*) 904억원(전년 대비 267억↑), 항공종사자 고용 확대(전년 대비 12% 증가)에 따라 안전교육·훈련 등에 투자
 - * 직원 대상 항공안전 교육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되거나 계획된 비용
 - ※ 항공종사자 고용 실적: ('23) 26,511명 → ('24) 29,583명 (자료: 항공정보포털)
- 정비훈련, 제작사 기종교육, SMS, 위험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교육 비용(670억)과 SIM(모의비행훈련장치) 구매·운영비용(232억) 등 포함
- (안전시스템* 등) 450억원(전년 대비 30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운영·유지보수 비용(399억)이 대부분을 차지
 - * 항공기 등의 정비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구매·유지비용
- (정비시설·장비 비용*) 311억원(전년 대비 114억↑). 공구·장비 구매에 185억, 정비시설 구축 및 운영비용에 73억원 사용
 - * 항공기 등의 정비·보관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설치·개선·구매·유지관리 비용

2 소형항공운송사(5개)

- [총 투자금액] 121.5억원(전년 83억 대비 38.4억(46.2%) 증가)
- 주요 투자 항목별 실적
 - (정비 비용) 59억원, 전년 대비 103.7% 증가하였으며, 이중 58억(98.2%)이 사전 정비비용으로 투자
 - (엔진 및 부품 구매) 40억원, 전년 대비 34.8% 증가하였으며, 엔진 구매에 1.9억, 정비 부품 구매에 37.8억 사용

3 공항운영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총 투자금액] 2,904억원(전년 2,586억 대비 318억(12.3%) 증가)
 - 인천공항공사: 1,902억원, 한국공항공사: 1,002억원
- 주요 투자 항목별 실적
 - (이착륙시설) 1,448억원(인천공항공사 940억, 한국공항공사 508억)
 -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확장지역의 항공등화 시설 개선 및 운용에 283억, 시각적 유도시스템 구축에 207억 투자

- 한국공항공사는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개선비용에 185억 사용
- **(항행안전시설)** 708억원(인천공항공사 357억, 한국공항공사 351억)
- 레이더 시설 개선, 계기착륙시설(ILS/DME) 구축 등에 투자 집중
- **(조업시설·장비)** 471.5억원(인천공항공사 462억, 한국공항공사 9.5억)
- 인천공항공사는 첨단복합항공단지 시설 구축에 342억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격납고 개선에 7.9억을 투자

'25~'26년도 안전투자 계획

① 국제항공운송사(11개)

- **'25년:** 9조 7,928억원('24년 比 3.9조↑), **'26년:** 10조 4,214억원('25년 比 6,286억↑)
- **변화 내용**
 - **(경년항공기 교체)** '24년 4대 교체 실적과 달리, '25년에는 4개사, '26년에는 5개사에서 신규 항공기로 교체할 계획
 - * '25년(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26년('25년+진에어 포함)
 - 투자액도 '25년 3.4조원, '26년 4.0조원으로 대폭 증가 전망
 - **(정비비용)** '24년 3.61조원에서 '25년 3.9조원, '26년 4.1조원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

② 소형항공운송사(5개)

- **'25년:** 111억원('24년 比 10억↓), **'26년:** 102억원('25년 比 9억↓)
- **[변화 내용]** '25년부터는 정비 비용('25: 46억 → '26: 38억), 엔진·부품 구매('25: 32.2억 → '26: 31.9억)을 포함하여 안전투자 소폭 감소 예정

③ 공항운영자(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25년:** 4,040억원('24년 比 1,136억↑), **'26년:** 2,278억원('25년 比 1,762억↓)
- **[변화 내용]** '25년 4,000억 이상 대규모 공항시설의 투자(활주로, 항행안전시설, 조업시설 집중) 이후 '26년에는 감소 전망(→투자 조정단계)
 - * 다만, '26년에도 안전투자와 별개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시설 분야에 대규모 투자 지속 예정

참고 1

항공안전투자 '24년 내역 및 '25년 ~ '26년 계획

(억원, %)

구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3년 (A)	'24년 (B)	증감		'25년 (C)	'26년 (D)	증감	
			B-A	%			D-C	%
총 계	58,445.1	61,769.1	3,324.0	5.7%	102,078.5	106,594.1	4,514.6	4.4%
항공사	55,858.8	58,865.3	3,006.5	5.4%	98,039.0	104,316.2	6,277.2	6.4%
국제운송사업자	55,775.7	58,743.8	2,968.1	5.3%	97,927.9	104,214.0	6,286.1	6.4%
(FSC)	43,640.1	46,335.6	2,695.5	6.2%	76,219.8	78,779.2	2,559.4	3.4%
대한항공	27,913.5	32,244.4	4,330.9	15.5%	58,605.4	63,259.4	4,654.0	7.9%
아시아나항공	15,726.6	14,091.2	-1,635.4	△10.4%	17,614.4	15,519.8	-2,094.6	△11.9%
(LCC)	12,135.6	12,408.2	272.6	2.2%	21,708.1	25,434.8	3,726.7	17.2%
제주항공	4,934.6	3,134.5	-1,800.1	△36.5%	4,003.4	5,506.2	1,502.8	37.5%
에어부산	2,293.2	1,759.2	-534.0	△23.3%	2,264.0	2,245.2	-18.8	△0.8%
진에어	1,119.1	1,985.8	866.7	77.4%	1,839.2	4,100.3	2,261.1	122.9%
티웨이항공	2,504.5	2,943.6	439.1	17.5%	7,296.6	6,199.2	-1,097.4	△15.0%
이스타항공	302.4	959.7	657.3	217.4%	3,891.1	4,731.3	840.2	21.6%
에어서울	603.7	709.5	105.8	17.5%	716.3	746.2	29.9	4.2%
에어인천	43.9	56.8	12.9	29.4%	387.7	357.1	-30.6	△7.9%
에어프레미아	260.6	695.4	434.8	166.8%	1,001.7	1,224.4	222.7	22.2%
에어로케이	73.6	163.7	90.1	122.4%	308.1	324.9	16.8	5.5%
소형운송사업자	83.1	121.5	38.4	46.2%	111.1	102.2	-8.9	△8.0%
글로벌리아항공	26.7	20.8	-5.9	△22.1%	10.2	6.3	-3.9	△38.2%
헬리코리아	6.1	6.9	0.8	13.1%	33.4	33.4	0.0	0.0%
유아이헬리제트	27.5	32.8	5.2	19.3%	24.6	24.6	0.0	0.0%
더스카이	4.4	10.6	6.2	140.9%	17.9	8.9	-9.0	△50.3%
케이에비에이션	18.3	50.5	32.2	176.0%	25.0	29.0	4.0	16.0%
공항운영자	2,586.3	2,903.8	317.5	12.3%	4039.5	2277.9	-1,761.6	△43.6%
한국공항공사	894.7	1,001.7	107.0	12.0%	1761.0	1421.8	-339.2	△19.3%
인천공항공사	1,691.6	1,902.1	210.5	12.4%	2278.5	856.1	-1,422.4	△62.4%

* 투자계획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항공안전투자 FSC/LCC별 현황

(억원, %)

항목	총계				FSC				LCC			
	합계		증감		합계		증감		합계		증감	
	23년	24년	금액	비율	23년	24년	금액	비율	23년	24년	금액	비율
①경년항공기 교체	11,920.9	5,347.2	-6,573.7	△55.1%	9,734.0	4,804.9	-4,929.1	△50.6%	2,186.8	542.3	-1,644.5	△75.2%
②예비용 항공기 도입	-	-	-	-	-	-	-	-	-	-	-	-
소계	11,920.9	5,347.2	-6,573.7	△55.1%	9,734.0	4,804.9	-4,929.1	△50.6%	2,186.8	542.3	-1,644.5	△75.2%
①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29,375.3	36,077.8	6,702.5	22.8%	22,888.8	28,654.7	5,765.9	25.2%	6,486.4	7,423.0	936.6	14.4%
②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13,164.9	15,652.7	2,487.8	18.9%	10,274.3	11,901.3	1,627.0	15.8%	2,890.6	3,751.5	860.9	29.8%
③정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196.9	311.1	114.2	58.0%	60.1	160.5	100.4	167.1%	136.8	150.6	13.8	10.1%
④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관리 등	19.1	22.1	3.0	15.7%	2.6	3.0	0.4	15.4%	16.5	19.1	2.6	15.8%
⑤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	637.4	904.2	266.8	41.9%	427.3	594.9	167.6	39.2%	210.1	309.2	99.1	47.2%
⑥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2.0	9.4	7.4	370.0%	-	9.4	9.4	-	2.0	-	-2.0	△100%
⑦항공안전 증진 홍보	1.2	3.4	2.2	183.6%	0.7	2.2	1.5	214.3%	0.5	1.3	0.8	160.0%
⑧안전관련 전산시스템	364.6	398.5	33.9	9.3%	230.5	204.5	-26.0	△11.3%	134.2	194.0	59.8	44.6%
⑨기타 안전지출	93.4	17.4	-76.0	△81.4%	21.8	0.2	-21.6	△99.1%	71.7	17.2	-54.5	△76.0%
소계	43,854.8	53,396.6	9,541.8	21.8%	33,906.1	41,530.7	7,624.6	22.5%	9,948.8	11,865.9	1,917.1	19.3%
총계	55,775.7	58,743.8	2,968.1	5.3%	43,640.1	46,335.6	2,695.5	6.2%	12,135.6	12,408.2	272.6	2.2%

참고 3

1만운항당 및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투자 규모

(안전투자 - 억원, % / 운항량 - 편 / 운용항공기 - 대)

구분	'23년					'24년				
	안전 투자 (A)	운항량 (B)	운용 항공기 (c)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C)	안전 투자 (A)	운항량 (B)	운용 항공기 (c)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C)
총 계	55,775.7	650,356	393	857.6	141.9	58,743.8	713,450	412	823.4	142.6
(FSC)	43,640.1	272,669	242	1600.5	180.3	46,335.6	299,795	245	1,545.6	189.1
대한항공	27,913.5	162,366	161	1,719.2	173.4	32,244.4	185,452	163	1,738.7	197.8
아시아나	15,726.6	110,303	81	1,425.8	194.2	14,091.2	114,343	82	1,232.4	171.8
(LCC)	12,135.6	377,687	151	321.3	80.4	12,408.2	413,655	167	300.0	74.3
제주항공	4,934.6	101,703	42	485.2	117.5	3,134.5	108,152	40	289.8	78.4
에어부산	2,293.2	64,100	22	357.8	104.2	1,759.2	64,532	21	272.6	83.8
진에어	1,119.1	82,949	27	134.9	41.4	1,985.8	88,549	31	224.3	64.1
티웨이	2,504.5	80,312	30	311.9	83.5	2,943.6	80,664	38	364.9	77.5
이스타	302.4	21,104	10	143.3	30.2	959.7	41,550	6	231.0	64.0
에어서울	603.7	15,381	6	392.5	100.6	709.5	14,108	15	502.9	118.3
에어인천	43.9	3,556	4	123.5	10.9	56.8	3,384	6	167.7	14.2
에어프레미아	260.6	2,432	5	1,071.5	52.1	695.4	2,783	4	2,498.6	115.9
에어로케이	73.6	6,150	5	119.7	14.7	163.7	9,933	6	164.8	27.3

* 항공사 운항량 자료: 항공정보포털

참고 4

1만운항당 및 항공기 1대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 1만운항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안전투자 - 억원, % / 운항량 - 편)

순위	항공사	안전투자(A)	운항량(B)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1	에어프레미아	695.4	2,783	2,498.6
2	대한항공	32,244.4	185,452	1,738.7
3	아시아나항공	14,091.2	114,343	1,232.4
4	에어서울	709.5	14,108	502.9
5	티웨이항공	2,943.6	80,664	364.9
6	제주항공	3,134.5	108,152	289.8
7	에어부산	1,759.2	64,532	272.6
8	이스타항공	959.7	41,550	231.0
9	진에어	1,985.8	88,549	224.3
10	에어인천	56.8	3,384	167.7
11	에어로케이	163.7	9,933	164.8

□ 1대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안전투자 - 억원, % / 운용항공기 - 대)

순위	항공사	안전투자(A)	운용 항공기(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B)
1	대한항공	32,244.4	163	197.8
2	아시아나항공	14,091.2	82	171.8
3	에어서울	709.5	6	118.3
4	에어프레미아	695.4	6	115.9
5	에어부산	1,759.2	21	83.8
6	제주항공	3,134.5	40	78.4
7	티웨이항공	2,943.6	38	77.5
8	진에어	1,985.8	31	64.1
9	이스타항공	959.7	15	64.0
10	에어로케이	163.7	6	27.3
11	에어인천	56.8	4	14.2

참고 5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 개요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고시)
 - (법 제133조의2) 항공교통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규정
 - *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 (고시) 안전투자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도입배경

- 관리자가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의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유도

□ 추진경과

- (근거마련)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 공시) 신설('19.11 공포)
 -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22.11.27) 시행(※ '20~'22년 시범운영)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고시, '20.9)
- (시범운영)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운영('20~'22)
- (공시 대상) 18개社* 대상으로 안전투자 내역 공시('25.8.29. 예정)

* 국제·국내운송사업자 11개社, 소형운송사업자 5개社, 인천·한국공항공사 2개 기관

** 공시사업자 : ('20) 4개→('21) 10개→('22) 19개→('23) 19개→('24) 18개→('25) 18개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한국공사